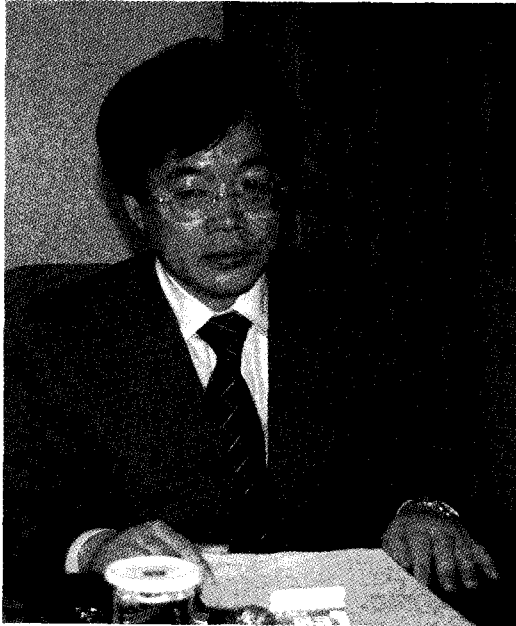


제3주제

한·일간의 원유무역의 가능성



큐슈대학교 교수
스즈끼 노부히로

이번 발표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원유의 가격, 양국의 현 낙농시장 등을 고려한 개량 모델을 예측함으로써 한·일간에 원유무역이 가능할 것인가, 더불어 중국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원유무역의 전개가능성을 도출한 결과입니다.

단, 계량모델을 이용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하에서 예측이 이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전제조건

분석결과에 앞서 우선 한국, 일본, 중국의 유가 수준에 대해 가정합니다. 2년전 대략 600원이던 한국유가를 최근 원유가 인상으로 730원까지 인상한 것으로 가정하고, 일본의 유가는 음용유의 경우 대략 900원, 가공원료유는 600원정도로 가정합니다. 일본의 가공원료유의 유대인 600원

중에는 200만톤 물량 범위내에만 보조되는 약 100원의 정부보조지급액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생산된 원유가 음용유로 이용되느냐, 가공용유로 이용되느냐 하는 비율에 따라서 최종적인 혼합유가가 결정되는데, 일본 혼슈의 낙농가 경우 860원을 수취하고 가공원료유 생산에 주력하는 북해도의 낙농가 경우는 730원정도를 수취합니다. 중국의 유가는 대략 200원정도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한국의 관세가 36%, 일본의 관세가 21.3%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지역인 큐슈의 후쿠오카까지의 원유 수송비가 60원/kg정도로 가정합니다.

한·일 모델(모델1)

상기와 같은 전제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사이에 원유무역이 이뤄질 경우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일FTA가 체결되어 무관세가 될 경우를 전제하여 전개될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FTA 타결 이전과 더불어 원유가가 인상되기 이전에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라면 그 가격은 당시 한국내 원유가인 600원에 수송비 60원과 일본관세 21.3%에 따른 140원까지 더해 총 800원이 됩니다. 이는 일본의 음용유가 900원보다 낮으므로 당시의 경우라면 수출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유가가 인상된 지금이라면 대략 960원이 되므로 대일 수출가능성은 없습니다. (960원 = 원유가 730원 + 수송비 60원 +

관세21.3% 170원)

그러나 FTA 타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라면 현재의 원유가라도 큐슈지역의 음용유 가격인 900원보다 싸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표를 통해 언급된 모델 1은 과거 원유가 인상 전을 전제하여 분석 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대략 26만톤의 원유를 큐슈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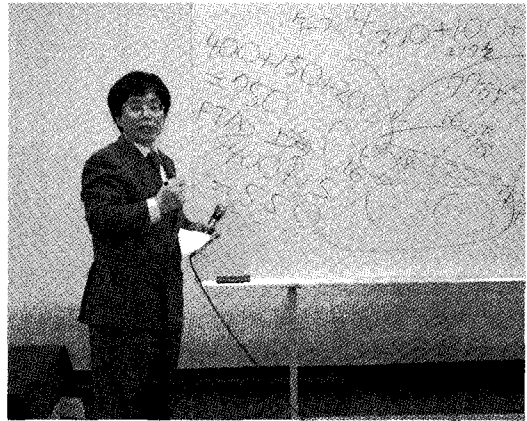
한·일·중 모델(모델2)

모델 2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까지를 포함하여 3국간의 원유무역 가능성을 살펴본 것입니다. 중국의 원유가인 200원/kg는 양국간의 유질의 차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대단한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FTA까지 체결된 이후라면 중국으로부터 일본 큐슈에 수출될 수 있는 물량은 128만톤에 이르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388만톤에 달합니다.

현재 중국은 매년 원유생산량이 400만톤 가까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양은 북해도 1년 생산량에 필적합니다.

국산 프리미엄을 고려하는 경우(모델 3)

이번에는 보다 현실적인 분석인 모델 3을 소개합니다. 이 경우는 각국의 유질 차를 인정하고 소비자가 수입품을 차별한다는 상황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 분석에 앞서 우선 후쿠오카에서 1리터에 1,800원 하는 우유를 한국산과 중국산이 얼마 수준이면 구매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1,800원/l의 우유를 한국산이면 950원, 중국산은 730원이면 구매하겠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즉 일본소비자 입장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되는 우유가 똑같은 양일지라도 한국산이나 중국산일 경우 가격이 일본산



에 비해 1.91배, 2.47배 낮을 경우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국산프리미엄을 고려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모델 3 중(일본에서 나타난 중국산의 2.47배 격차를 반영) 중국산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양은 약 31만톤입니다. 현재 중국산 우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유내 항생잔류물질을 비롯한 위생적이면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중국이 절대적으로 원유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무역량은 억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과 일본산 간의 1.91배의 국산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지만 한국산과 일본산의 유질의 차가 거의 동일해질 것을 가정한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국산 프리미엄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한·일 지역간의 원유무역 분석

다음은 일본에서 한국에 원유수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해도의 가공원료유가는 정부보조금 100원까지 포함하여 700원정도가 됩니다.

북해도에서 혼수에 판매되는 가공원료유가 수송비용이 200원/원 정도(실제 280원정도)를 포함하여 총 900원 정도 됩니다.



최근 일본에 탈지분유 재고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 재고량 해소를 위해, 가공원료유를 탈지분유로 제조하지 않고 치즈생산용으로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실제 생산자 수취가격이 300원~400원입니다. 따라서 수익차원에서 북해도산 가공원료유를 치즈생산용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혼슈에 음용유로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 국내적으로 북해도산 원유가 혼슈로 많은 양이 음용유로서 이출되면 혼슈의 낙농이 위협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남북전쟁이라 일컬을 정도로 치열한 상황까지 전개되었던 만큼, 요즘에는 비공식적인 협정에 의해서 북해도에서 혼슈로의 이송량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북해도산 원유를 북해도낙농협동조합연합회가 소유하고 있는 2척의 수송선을 이용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가의 북해도 치즈용 원료유 300원을 수송비 100원을 들이고 관세 140원을 물게 될 경우, 총 540원정도가 되므로 북해도산 원유는 한국으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해도산 치즈용원료유가 400원일 경우 수송비 150원에 관세 200원을 포함하면 총 750원정도로, 한국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한·일FTA까지 체결되어 무관세가 된다면 550원으로 수입되는데 한국의 원유가가 600원/kg이라는 상황을 전제하여 분석해본 결과, 일본은 한국으로 연간 77만톤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 내 지역간의 원유무역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큐슈로 16만톤, 큐슈에서 한국으로

14만톤, 한국에서 동경으로 22만톤, 긴키(近畿) 지역으로 16만톤의 원유무역이 가능합니다.

결론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FTA 체결에 따라 한일간에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에서 큐슈로의 원유수출만이 아닌, 북해도에서 한국으로 대량 원유수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쌍방향 원유무역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 경우 한국에서 비유축진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으로부터 일본 지바현 낙농조합에 고품질의 원유를 상하이로 수출해달라는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품질이 낮은 중국산 우유보다 일본산 우유에 대한 고소득층의 수요가 많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일본산 우유뿐 아니라 한국산 우유에 대한 고소득층의 수요도 생길것이라 봅니다.

최근 한국산과 일본산의 품질이 거의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산과 한국산에 존재하는 자국산 프리미엄이 점차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한국과 일본간의 원유유통은 국가간의 무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산지간의 경쟁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

국의 대일 원유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1.91배라는 일본내 자국산 프리미엄을 축소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이 인접 낙농국가로서 협조와 경쟁을 통한 상호보완적 유제품무역을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표〉 동아시아 원유무역에 의한 원유수급, 유가, 원유생산액 및 원유자금율의 변화

변 수		단위	현상치	모델1 한일무역		모델2 한일중무역		모델3 한일중무역 국산프리미엄 있는 경우	
규슈	생산량 역외 수출량 (일정으로가정)	(a) 만톤	79.8	53.8	(67.4)	34.1	(42.7)	51.4	(64.4)
		만톤	17.8	17.8		17.8		17.8	
	수입량 한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만톤	0.0	26.2		128.2		30.8	
		만톤	0.0	26.2		0.0		0.0	
		만톤	0.0	0.0		128.2		30.8	
	수요량(규슈만) 음용용 가공용	(b) 만톤	62.1	74.8	(120.5)	144.5	(232.8)	76.9	(124.0)
		만톤	49.5	62.3	(125.7)	109.5	(221.2)	64.4	(130.0)
		만톤	12.5	12.5	(100.0)	35.0	(278.7)	12.5	(100.0)
	총합유가(생사지수취) 음용용 유가 (실수요자 지불) 가공용 유가 (실수요자 지불)	(c) 엔/Kg	86.8	71.1	(81.9)	56.5	(65.1)	69.5	(80.1)
		엔/Kg	90.1	68.9	(76.4)	35.5	(39.4)	66.2	(73.5)
엔/Kg		61.8	-		-		-		
생산액 (a×c)	억엔	692.8	382.7	(55.2)	192.4	(27.8)	357.1	(51.5)	
자금율 (a/b)	%	128.6	71.9		23.6		66.8		
한국	생산량	(e) 만톤	233.9	243.6	(104.1)	148.1	(63.3)	233.9	(100.0)
		만톤	0.0	26.2		0.0		0.0	
	수출량(규슈로)	만톤	0.0	0.0		388.0		0.0	
	수입량(중국으로부터)	만톤	0.0	0.0				0.0	
	국내 수요량	(f) 만톤	233.9	217.3	(92.9)	536.2	(229.2)	233.9	(100.0)
	유가	(g) 엔/Kg	60.0	62.9	(104.7)	35.5	(59.2)	60.0	(100.0)
	생산액 (e×g)	억엔	1403.4	1530.8	(109.1)	525.8	(37.5)	1403.4	(100.0)
자금율 (e/f)	%	100.0	112.1		27.6		100.0		
중국	생산량	(h) 만톤	1025.5	-		1492.8	(145.6)	1052.8	(102.7)
		만톤	0.0	-		516.2		30.8	
		만톤	0.0	-		128.2		30.8	
	수출량 규슈로 한국으로	만톤	0.0	-		388.0		0.0	
	국내 수요량	(i) 만톤	1025.5	-		976.6	(95.2)	1022.0	(99.7)
	유가	(j) 엔/Kg	20.3	-		29.5	(145.6)	20.8	(102.7)
	생산액 (h×j)	억엔	2077.7	-		4402.7	(211.9)	2189.6	(105.4)
자금율 (h/i)	%	100.0	-		152.9		103.0		

주: ()내 수치는 현상치를 100으로 하는 지수.

제3주제